

KIA 마운드 예열 중 “내일이라도 공 던지고 싶다”



2024 라우어·윤영철·장현식·최지민·임기영 등 구슬땀 피칭 없는 네일·양현종도 덕아웃서 후배들 응원

‘호랑이군단’이 한국시리즈를 위해 마운드를 예열했다.

KIA 타이거즈의 투수들이 16일 바쁜 하루를 보냈다. 이날 불펜에서는 에릭 라우어, 윤영철, 김도현이 불펜 피칭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올 시즌 선발로 활약했던 이들은 유니폼을 챙겨 입고 한국시리즈 무대를 생각하면서 공을 던졌다. 황동하도 불펜에서 공을 던져보면서 컨디션을 점검했다.

기술 훈련 뒤 진행된 라이브 훈련에서도 투수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날 김기훈을 시작으로 김승현, 이준영, 장현식, 최지민, 임기영, 김대유, 박도규가 연달아 마운드에 올랐다. 이들은 KIA 타자들을 상대로 각각 25구씩 던졌다.

피칭을 소화하지 않았던 제임스 네일과 양현종도 덕아웃에 등장해 훈련을 지켜보면서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한국시리즈가 다가오면서 선수들이 움직임은 더 뜨거워졌다.

아직 엔트리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날 훈련은 실전 준비이자 경쟁의 무대이기도 했다.

마운드와 타석에 선 선수들의 컨디션을 점검한 코치진은 투수의 움직임도 꼼꼼히 확인했다.

코치진은 상황에 맞게 수비수·주자들이 움직이는 지를 점검하면서 큰 무대를 위한 세밀함을 더했다.

모든 훈련이 끝난 뒤 이범호 감독이 직접 나서 주자들의 움직임을 확인하기도 했다.

타석의 움직임은 좋다. 힘을 비축한 타자들이 좋은 페이스로 결전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라이브 훈련에서는 김태군이 사람들의 감탄사를 이끈 홈런을 선보이기도 했다.

마운드는 ‘예열 중’이다.

앞서 상무야구단과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두 차례 연습경기가 진행됐지만 김도현은 아직 마운드에 오르지 않았다.

이날 불펜에서 30개의 공을 던진 김도현은 “컨디션이 좋다. 내일이라도 경기에서 공을 던져보고 싶다”며 “어느 팀이 올라오든 잘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실전을 남겨둔 투수도 있고, 불펜진도 아직 100%의 모습은 아니다.

8번째 한국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 ‘최고참’ 최형우는 이날 투수들에게 ‘전력 피칭’을 주문하기도 했다. 훈련부터 한국시리즈처럼 전력으로 해야 한다는 게 최형우의 이야기였다.

KIA는 ‘젊은 마운드’로 우승을 이루었다. 패기와 힘으로 선두자리에서 시즌을 달려왔지만 ‘경험’이 변수로 남아있다.

2017시즌 우승 순간을 확정했던 베테랑 양현종과 이해 ‘깜짝 활약’을 하면서 우승 반지를 거머쥔 임기영이 있지만 마운드의 경험이 부족하다.

KIA 투수진에서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아본 선수는 양현종, 임기영과 NC 소속이었던 2016시즌 0.1이닝을 소화한 장현식이 전부다.

물음표가 남아있는 마운드에서 전상현에 시선이 쏠린다. 입버릇처럼 우승을 목표로 이야기해 왔던



KIA 타이거즈의 임기영이 1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라이브 피칭에 앞서 캐치볼을 하면서 몸을 풀고 있다.

전상현은 큰 무대를 즐기는 ‘포커페이스’다. 필승조 전상현은 투수진 ‘허리 역할’도 맡고 있다.

전상현은 16일 투수 후배들을 모아 밥을 썼다. 2명의 트레이닝 코치까지 초청해 한국시리즈에 앞서

시간을 가졌다.

“트레이너와 나까지 11명이었다. 생각보다 후배가 많았다”며 웃은 전상현은 “합숙 전에 자리를 하려고 했었다. 그날 후배들에게 사주고 싶었다”고 이

야기했다.

한편 KIA는 17일 휴식일을 보낸 뒤 18일 자체 연습경기를 갖고 마지막 리허설을 진행한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사실상 ‘개근상’ 광주FC 정호연 “행복합니다”

대표팀 소집 후 휴식·경고 누적... 33경기 중 31경기 그라운드 질주 프로 3년차에 시즌 100경기 출장

‘3074분’을 달린 광주FC 정호연, 그의 질주는 계속된다.

잠시 숨을 골랐던 광주FC가 1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대구FC를 상대로 34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지난 시즌 K리그1에서 구단 최고 순위인 9위를 장식했던 광주는 올 시즌에는 7위를 기록, 파이널 B에서 대구전을 시작으로 스플릿 라운드 일정을 소화한다.

‘생존싸움’과 함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ACLE)도전도 이어가야 하는 등 광주는 어느 시즌보다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다. 쉬 없이 달려가고 있는 광주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 그라운드를 누빈 선수는 바로 정호연이다.

정호연은 올 시즌 33경기 중 31경기에 출전했다. 정호연이 쉬어간 두 경기도 어쩔 수 없는 휴식이었다.

올 시즌 처음 태극마크도 단 정호연은 대표팀 소집 이후 휴식 차원에서 한 차례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됐다. 또 경고 누적으로 한 경기를 쉬었다.

31경기 중 29경기를 선발로 출장한 정호연은 3074분을 뛰었다. 경기당 평균 99분을 뛰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ACLE 경기까지 정호연은 부지런히 뛰고 또 뛰었다.

광주의 중원 사령관으로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여온 그는 올 시즌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역할을 하는 등 부담 많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정호연은 매 순간 ‘감사함’으로 그라운드에 오른다.

정호연은 “경기 나갈 수 있는 게 감사하다. 많은 경기에 나갈 수 있어서 좋다”며 “경기 계속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선수도 많아서 더 열심히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한다. 행복한 나날들이다”고 언급했다.

그라운드에 있는 자체가 행복이라는 정호연은 힘든 순간을 통해서 얻는 배움도 감사하다.

많은 시선을 받으며 시작한 광주의 올 시즌은 물러코스터였다. FC서울과의 개막전 승리 등 연승으로 시즌을 열었지만 시즌 중반 6연패의 늪에 빠지기도 했다.

코리아컵 일찌감치 소화하느라 힘든 여름을 보냈고, 아쉽게 파이널 A 목표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정호연에게는 배움이 됐다.

“팀 성적이 안 좋으면 나도 못 하는 것이라고 생



광주FC의 ‘실링본’ 정호연이 올 시즌 팀에서 가장 많은 3074분을 뛰면서 통산 100경기 출장도 이뤘다. (광주FC 제공)

각한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게 팀이 6연패 할 때도 나갔던 사람이다”며 개인보다는 팀을 이야기한 정호연은 “팀으로서 준비한 걸 믿고 했던 것 같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시즌을 치르고 있다. 같이 압박감, 부담감을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 조금씩 우리 축구색이 짙어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체력적인 부담 속 정호연은 개인으로도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을 보내기도 했다. 정호연은 31라운드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망연자실 실점 장면을 지켜봤다. 광주 박스 지역에서 공을 처리하다 실수를 했고, 이게 서진수의 골로 연결됐다.

정호연은 100경기 출장날이었던 9월 28일 김천 상무와의 32라운드 원정경기에서도 다시 한번 실점 장면을 목격했다. 후반 28분 광주 진영에서 정호연이 상대 압박에 넘어졌고, 김대원에 이어

이동경에게 공이 연결되면서 광주의 골대가 뚫렸다.

정호연은 “많이 배운 것 같다. 안일한 실수로 팀이 쫓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경기 맥을 끊었던 것 같다”며 “힘들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걸 배운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금호고 출신의 정호연은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매년 성장하면서 많은 이들의 시선을 받는 특급 선수가 됐다. 그리고 프로 3번째 시즌에 100경기 출장도 이뤘다.

정호연은 “한 클럽에서 3년 차에 100경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뜻깊은 것 같다. 광주라는 구단에서 만 100경기를 뒀 거라서 유스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좋다”며 “잘 준비하고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고 더 큰 미래를 그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벼랑 끝’ LG, 안방서 ‘신바람’ 일으킬까

10점대 평균자책점·팀타율 2할 4할 불방망이 삼성에 투타 열세 삼성과의 PO 1·2차전 모두 겨

지난해 프로야구 정규리그·한국시리즈 통합 챔피언 LG 트윈스가 올해 플레이오프(PO·5전 3승제)에서 벼랑 끝에 몰렸다.

LG는 대구에서 벌어진 PO 1~2차전을 모두 삼성 라이온즈에 내주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상경했다. 준플레이오프 5경기와 정규시즌 144경기를 합쳐 올해 151경기를 치른 LG는 한 번만 지면 2024년을 마감한다.

17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잠실구장에서 벌어지는 PO 3차전에서 LG는 총력전을 펼 수밖에 없다.

LG는 ‘홈 공장’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1, 2차전 모두 10점씩 허용하고 힘없이 무너졌다. 삼성은 1차전에서 3방, 2차전에서 5방의 대포쇼를 벌이며 LG 마운드를 녹다운시켰다.

14일에 내린 비로 팔맛 같은 휴식을 즐기고 15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선 PO 2차전은 LG에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결정적인 경기였다.

이기면 1승 1패로 균형을 맞추고 서울로 향할 수 있었지만, 공격과 마운드 다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다.

특히 정규리그 2위로 PO에 직행한 덕에 폭 쉬고 등판한 데니 레예스와 원태인, 삼성의 두 선발

투수에게 묶어 치명상을 입었다.

LG는 준PO 5경기에서 도루 12개를 기록하며 KT 마운드를 뒤흔든 끝에 PO 티켓을 손에 넣었다. 그러나 PO에서는 3할을 겨우 넘긴 저조한 팀 출루를 탓에 뛰는 야구와 특유의 공격 야구를 혼합하지 못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염경엽 LG 감독은 거대한 잠실구장에서는 LG만의 뛰는 야구와 스몰볼로, 크기가 잡실보다 작은 지방 구장에서는 빅 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장타 대결에서 LG는 삼성에 완전히 밀렸다.

준PO부터 맴타를 휘두르는 신민재만 타율 0.500, 출루율 0.556을 기록하고 제 뒀을 해낼 뿐 나머지 타자들의 방향이는 힘을 잃었다.

풀 죽은 방망이가 삼성 선발 황동재를 초반에 공략하지 못한다면 LG는 PO 3차전도 고전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LG의 믿을 구석은 3차전 선발 투수 임찬규다. 임찬규는 1패를 당하고 시작 한 준PO에서 2차전 선발로 등판해 5.1이닝 2실점 투구로 승리를 따내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2승 2패로 맞선 준PO 5차전에서는 6이닝 1실점으로 LG를 PO로 인도했다.

삼성 불방망이를 상대로 임찬규가 ‘슈퍼 세이브’를 올린다면, LG는 필승카드 엘리베이터에 오르는데 삼성의 추격을 저지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임찬규가 조기에 힘든 지경에 몰리면, 별뿔뿔 반격도 수포가 될 공산이 짙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선수들 분위기 좋다”

임시 주장 김민재 “A매치 2연승, 선수들이 만든 것”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부에서 시끄럽든, 외부에서 시끄럽든, 결국 분위기는 선수들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시 주장”으로 홍명보호의 2연승에 이바지한 ‘철기둥’ 김민재(왼쪽·사진)는 이렇게 말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5일 경기도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4차전에서 이라크에 3-2로 이겼다. 지난 10일에는 요르단 원정 3차전에서 2-0으로 승리한 홍명보호다. 북중미행의 최대 고비로 여겨지던 10월 A매치 2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활짝 웃었다.

태극전사들이 뚝뚝 뭉치지 못했다면 달성하기 어려웠을 성과다.

올 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처절한 실패를 맞

본 뒤 거듭된 훈련에 어지럽던 한국 축구에 모처럼 ‘승리의 기운’이 가득해진 모습이다.

카타르아시안컵 뒤에는 내분이 벌어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최근에는 홍 감독의 선임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한바탕 축구계를 뒤흔들었다.

경기 뒤 공동취재구역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민재는 “선수들 모두가 그런 거(논란)에 신경 쓰고, 또 훈련할 때 생활할 때도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게 노력했다”면서 “그렇기에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